

# BTS 슈가·어거스트 디사이... '수가제면' 아이돌, 장인 균형감각

## 어거스트 디 트릴로지 마지막 '디-데이' 발매 디즈니+ 다큐 '슈가: 로드 투 디-데이' 공개

"제 꿈 중에 하나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 각 악기 연주자들을 섭외해서 녹음을 받아와 음악을 만드는 것이예요. (사카모토 류이치 선생님) 다큐 중 인상 깊었던 대사가 '세상엔 소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었어요. 전 정규적인 음악 교육도 받아본 적 없고 독학으로 엄청 했던 타입이라 많이 공감 됐어요. 제가 후배들에게 하는 소리이기도 했고요. 가득 찬 세상의 소리로 음악을 저 역시 만들 수가 있었어요.'(디즈니 플러스+) 다큐멘터리 '슈가: 로드 투 디-데이(SUGA: Road to D-DAY)' 중)

지난해 9월 30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거장 음악가 사카모토 류이치(坂本龍一·1952~2023)를 만난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0·민윤기)는 몸둘 바를 몰라 했다. 슈가는 대구에 살던 때인 열 두 살에 부모와 약 50석짜리 재계봉 극장에서 봤던 영화 '마지막 황제'를 계기로 음악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됐다. 사카모토는 이 영화의 음악으로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고, 그래미상도 차지했다.

그런 사카모토는 슈가와 대면해 그의 음악관에 대한 이야기를 조용히 듣다가 "대단해요. 저도 10대부터 세계의 다양한 민속 음악을 좋아해 음악가가 아닌 학자가 될까라는 생각도 했었다"고 털어놨다.

슈가는 사카모토의 개인적인 장소에 놓인 피아노로 사카모토의 대표곡 '메리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를 연주하기도 했다. 사카모토 역시 슈가를 위해 이 곡을 직접 연주했다. 슈가는 "50~60대에도 음악을 하고 싶은데 어떤 모습으로 음악을 해야 할지 (영감을 받았다면) 아버지보다 연세가 많으신데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는 게 즐겁다"고 했다.

사카모토는 일본 문예지 '신조(新潮)'에 연재한 암투병 에세이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보게 될까' 최종화인 2월호 실린 글에 슈가를 만난 일화를 적고 "음악에 진지한 청년"으로 그를 기억했다. 슈가는 이날 초 사카모토의 부고 소식을 접한 직후 "선생님 머나먼 여행 평안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추모했다.

슈가가 최근 발매한 솔로 앨범 '디-데이(D-DAY)'에 실린 '스누즈(Snooze)'엔 사카모토의 피아노 연주가 녹아 있다. 국내 브리시티 록 밴드 '더 로즈(The Rose)'의 보컬 김우성이 목소리를 보태기도 한 이 곡은 후배들을 위한 노래다. 제목처럼 '쭈뼌'을 자고 밥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다.

슈가는 사카모토에게 작업 중이던 이 곡을 들려줬다. 가사가 무슨 뜻이냐는 그의 물음에 슈가는 이렇게 답했다. "후배들이 이 음악

을 듣고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힘들겠지만 괜찮아질 것이고... 어릴 때부터 꿈에 대해 쓰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쭈뼌'을 자도 괜찮아질 테니까 추락이 두렵다면 내가 다 받아줄게라는 가사예요. 이 일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가끔씩 저를 보고 저희 팀을 보고 '꿈을 꿔어오' '행 음악 듣고 음악을 시작했어오'라고 말해주는 후배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사카모토는 "(슈가) '자신에게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주는 곡 같다"고 답했다. 슈가는 "사카모토 선생님 풍모로 스트링 편곡을 하고 피아노도 그렇게 편곡해가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병원에서 밥도 못 먹고 작업하고 있는데 이걸 작업할 때 기력이 돌아와 링거를 뽑고 나왔다"며 동의했다.

이렇게 '디-데이'는 슈가가 자신의 경험을 담은 솔직한 위로로 전하는 음반이다. K팝 솔로로서는 발매 당일 최다인 107만2000장 판매량을 기록한 숫자보다 더 많은 해석이 가능한 의미, 은유가 담겼다.

위로와 공감을 상징하는 또 다른 대표곡은 '아미그달라(AMYGDALA)'. 감정·걱정·불안 등을 처리하는 뇌 부위인 편도체(AMYGDALA)라는 단어를 통해 트라우마 그리고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들을 노래한다. "엄마 심장의 수술 / 꽃가엔 엄마 심장 시계 소리" "전하지 못했던 내 사고 소식" "아버지의 간담 소식" 등 슈가가 직접 털어놓지 못했던 아픔이 가사로 녹아들어갔다.

그래서 이번 음반이 '어거스트 디(Agust D)'로서 공개했던 믹스테이프 '어거스트 디(Agust D)'(2016년), '디-투(D-2)'(2020년)에 이은 '어거스트 디 트릴로지(3부작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음반이다.

어거스트 디라는 활동명은 슈가가 예전에 가사로 썼던 'DT 슈가(Suga)'를 거꾸로 배열한 것이다. DT(디 타운(D Town))는 슈가가 과거 속해 있던 힙합 크루 이름이다. 그의 고향인 대구 기반의 크루였다.

슈가는 전곡의 작사, 작곡부터 앨범의 프로듀싱까지 작업의 전반을 이끌며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이번 음반으로 어거스트 디로서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다.

타이틀곡은 '해금'은 곡에 사용한 국악기 '해금(奚琴)'과 '금지된 것을 풀어(解禁)'는 중의적 표현을 사용했다. 일상과 사회에서 여러 제약과 제한에 얽매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자유'라는 화두를 던진다고 설명했다. 그 해금은 슈가가 이전 음악적 자아로부터 해방도 뜻한다.

'미션' '흑사회' '익사일'로 유명한 '홍콩 누아르' 영화의 대부 두치펑(杜琪峰·두기봉) 감독 풍의 '해금' 뮤직비디오 역시 이를 상징한다. 답은 듯 다른 분위기의 두 인물들 슈가가

1인2역으로 오가는데 앞서 콘셉트 포토에 나왔던 상반된 캐릭터 '비잉(Being)'과 '에그지스테(Exister)'의 대결을 뜻한다.

뮤직비디오 막판에 정리되지 않은 캐릭터인 에그지스테가 정리된 캐릭터 비잉을 죽이는 반전이 있는데 그것이 의미가 있다. 영어 '비잉'은 명사로 '존재' '실재'를 가리킨다. 프랑스어인 에그지스테 역시 '존재한다'는 의미로 크게 보면 뜻은 같지만 이는 명사가 아닌 자동사(自動詞)다. 주어의 주체성에 더 방점이 찍히는 데 이전의 정형화된 자신을 지우고 새로운 나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2012) 등 광해의 분신 발상에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전작인 '디-투' 타이틀곡 '대취타'(2020) 뮤직비디오에도 슈가가 1인2역을 연기했었는데 이 작품에서도 그는 두 번의 반전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전복했다.

어거스트 디로서는 마지막 활동이 될 것이라고 추정되는 이번 일련의 행보는 다양한 입체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만든다. 음반뿐 아니라 다큐 그리고 애플 뮤직 라디오 채널인 애플 뮤직 원(Apple Music 1) 라디오 시리즈 '슈가 | 어거스티 디 라디오(SUGA | Agust D Radio)'(총 5개의 에피소드를 5월16일까지 매주 화요일 공개) 등 다양한 콘텐츠로 팬덤 '아미'를 만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슈가 | 어거스티 디 라디오'에서는 슈가가 어린시절 그에게 영감을 줬던 음악들을 공유 받는 즐거움이 크다. 밤 먹을 때 틀어놓은 음악방송에서 흘러나온 레게 힙합 듀오 '스토니 스킵크'의 '라가 머핀'을 들은 후 랩에 관심을 갖게 됐고 미국 힙합 스타 에미넴의 또 다른 자아 '슬림 셰이디'는 슈가와 어거스티 디의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

어릴 때 에픽하이·원더원 등 국내 힙합, 제이 지·나스 등 외국 힙합 등 다양한 힙합을 듣고 자란 만큼 어거스티 디의 행보를 마무리하는 이번 작품에도 '해금'을 비롯해 다양한 힙합이 실렸다.

미국 시카고에서 탄생한 힙합 음악의 하위 장르 중 하나인 드릴(Drill)의 영향을 받은 곡으로 방탄소년단 역시 래퍼 라인인 제이홉이 피쳐링한 '하?!(HUH?!)', 트랩 힙합·팝 장르인 '아미그달라', 힙합 R&B 'SDL', 뽕뽕 리듬을 중심으로 한 랩 R&B 곡이자 아이유가 피쳐링한 선공개 노래 '사랑 Pt.2' 등이 담겼다.

슈가는 이런 힙합을 기반으로 아이돌로서는 드물게 사회에 대한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예를 들어 이번엔 '해금'에서 담배를 태우는 장면이다. 아이돌 뮤직비디오에서 담배 태우는 장면이 등장하는 건 이례적이다. 그런데 사실 서면이 된 슈가가 담배를 태우는 장면 자체에 만약 갑툭음을 생각해볼 때 이거 이상한 일이다. 슈가 역시 '슈가: 로드 투 디-데이'에서 "내 나이에 '해금'의 담배 장면이 문제가 된다면 이 사회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좋을까 (고민이 생길 거 같다)"고 털어놓는다.

그럼에도 슈가는 아이돌이 중심이 된 '케



이팝(K-POP)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다큐에서 방탄소년단과 협업한 할시, 앤더슨 팩, 스티브 아이키 등의 집을 찾아가 그들을 만나 슈가는 팀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의 뿌리가 어디 있음을 명확히 인지한다. 슈가는 음악의 범주를 최대한 넓게 잡고 그 안에서 K팝과 그 외 음악을 구분하지 않은 채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으려 노력한다. '민 PD'라 불리며 이소라, 아이유, 싸이, 에픽하이, 할시, 맥스, 고(故) 주스 월드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가들과 작업하는 그가 균형감각이 돋보이는 이유다.

방탄소년단 슈가 아닌 어거스티 디는 사실 과격한 면모가 있다. 그 날서 있음은 이번 음반과 앨범에서도 여전한데 다만 이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음악감독 겸 싱어송라이터 강승원이 작곡한 고(故)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일부를 샘플링해 만든 뽕뽕 힙합 장르의 '극야'가 예다. 한낱에도 어둠이 지속되는 '극야' 현상에 빗대어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에 대한 고찰을 담았다.

"시커먼 질문들과 무차별 비난들 사이 /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가"라고 읊조리는 이 곡은 나와 너 우리가 깨끗한지 묻는데 어련한 곡의 분위기는 희망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만든다.

슈가는 '슈가: 로드 투 디-데이'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정보가 손바닥 안(스마트폰)

에서 보여지니까 상상이나 생각하는 걸 나조차도 안 하게 된다. 그런 것들에게 해방돼 보자. 삶에서 금지 당하는 거에서"라고 말한다. 말 그대로 '해금'이다.

그건 슈가의 말처럼 우리 인생에서 평생 따라다니는 불안으로부터 탈피하는 일이기도 하다. 슈가는 '슈가: 로드 투 디-데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한다. "많은 확률로 내가 걱정했던 미래는 일어나지 않는다. 항상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두려워하며, 고칠 수 없는 과거에 괴로워한다. 그런데 현재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과거에 관한 의미 부여는 힘들다.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불안정했지만 그 만큼 고민거리를 안겨준 어거스티 디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이제 또 다른 자아를 찾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다큐에서 석양을 배경으로 길게 뻗은 도로를 슈가가 직접 차를 몰고 달리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아미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해금' 뮤직비디오 도입부. 슈가가 국숫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수가제면(手家製麵) 백설당면(白雪糖麵) 등이라고 적힌 간판이 눈길을 끈다. 슈가를 상징하는 일종의 언어 유희이자 장인정신을 은유한다. 특히 슈가가 뮤직비디오 초반에 무기로 사용한 젓가락을 나중에 면을 건져 먹을 때 사용하는데, 이런 'K팝 아이돌 장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공격적인 그 무엇이든 뜻한다.

## '슈퍼 마리오' 美 3주 연속 1위...총 수익 9억 달러 눈앞

###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미국 흥행 돌풍



애니메이션 영화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가 미국에서 3주 연속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달렸다. 전 세계 매출액 9억 달러 돌파도 눈앞에 뒀다.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는 21~23일 매출액 5823만 달러(약 774억원)(박스오피스 모조 기준)를 기록해 개봉 3주차 주말에도 박스오피스 최상단 자리를 유지했다. 미국 누적 수익은

4억3430만 달러로, 올해 미국 개봉 영화 흥행 순위 2위인 '엔트맨과 와스프: 퀴엄테니아'(2억 1295만 달러)를 2배 이상 앞질렀다.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는 미국 외 지역에서도 흥행에 성공하며 총 매출액 9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외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4억3750만 달러로, 총 매출액 8억7180만 달러(약 1조1600억원)를 기록 중이다.

다. 이 작품은 일본 닌텐도가 1985년부터 내놓은 비디오 게임 '슈퍼 마리오' 시리즈를 영화화했다.

미국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일루미네이션이 닌텐도 그리고 유니버설과 합작했으며, 애런 호바스·마이클 제레닉이 연출했다. 영화는 뉴욕의 배관공 형제 마리오와 루이지가 배수관 고장으로 위기에 빠진 도시를 구하려다가 미스터리한 초록색 파이프 안으로 빨려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어벤저스' 시리즈의 스타로드로 잘 알려진 배우 크리스 프랫이 마리오를, 찰리 데이이 마리오의 동생 루이지 목소리 연기를 맡았다. 안야 테일러조이는 피치 공주 목소리를 연기했다. 이와 함께 잭 블랙, 세스 로건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대거 참여했다. 국내에선 오는 26일 공개된다.

이밖에 미국 주말 박스오피스 순위는 2위 '이블 데드 라이즈'(2350만 달러·첫 진입), 3위 '커버넌트'(630만 달러·첫 진입), 4위 '존 워 4'(575만 달러·누적 1억6880만 달러), 5위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540만 달러·누적 8220만 달러) 순이었다.

## '가왕' 조용필...정규 20집 두 번째 여정

### 내일 오후 6시 '로드 투 트웬티 - 프렐류드 투' 발매



'가왕' 조용필(73)이 정규 20집을 향한 두 번째 여정에 오른다.

24일 소속사 YPC와 음반 유통사 유니버설 뮤직에 따르면, 조용필은 26일 오후 6시 새 싱글 '로드 투 트웬티 - 프렐류드 투(Road to 20 - Prelude to You)' '필링 오브 유(Feeling Of You)'를 발매한다.

지난해 11월 발매한 정규 20집 리드 싱글 '로드 투 트웬티(20)-프렐류드 1' 이후 5개월 만이다. '프렐류드 1'에 실린 '세레게티처럼' '찰나'는 여전히 젊은 조용필의 감각을 증명했다. 2013년 정규 19집 '헬로(Hello)' 이후 약 9년 만의 신곡이었다. 지난 50여년 간 총 19장의 정규 앨범을 낸

조용필이 싱글 형태로 신곡을 잇따라 발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상반기에 20집의 일부 곡들을 담은 미니앨범(EP)도 계획하고 있다.

이날 조용필은 신곡 티저 영상을 YPC 공식 유튜브 채널과 유니버설뮤직 코리아 공식 소셜 미디어 및 유튜브 채널, 각종 음원 플랫폼에 공개했다.

통통 튀는 원색적인 색감이 돋보이는 애니메이션이다. 조용필의 대표곡 '킬리만자로의 표범'과 '못찾겠다 꾀꼬리'에 영감을 받아 한국 전통 민화 작화에도 나오는 호랑이와 까치의 디자인을 활용했다.

YPC는 "조용필의 시그니처(기타·안경)에 영감을 받아 아티스트와 비슷한 생김새의 캐릭터가 등장한다. 그림같은 영상 위에 캐치한 멜로디와 세련되면서 풋풋한 목소리의 합을 보여주는 조용필의 음악이 더해졌다"고 소개했다. 한편 조용필은 오는 5월13일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과 같은 달 27일 대구 스타디움 주경기장에서 '2023 조용필&위대한 탄생' 콘서트를 연다.